



제목	Uneven Centuries: Economic Development of Turkey since 1820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8. 11. 13.
저자	Şevket Pamuk
출판도시	Princeton
페이지수	368
ISBN 또는 ISSN	978-0691166377

내용 요약

『불균등한 세기들: 1820년 이후 터키의 경제 발전』은 지난 2세기 동안 터키가 이룩한 경제 성장과 인간 개발에 관한 역사서이다. 이스탄불 출신의 경제사가인 저자 파묵은 터키 경제 발전의 제도와 변혁에 관한 연구서인 동시에 국가를 발전시키는 유형에 대한 분석서를 서술하고자 하였다.

책은 총 11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 ‘1820년 이후의 경제 성장과 인권의 발전’은 19세기 유럽에 의해 강요된 경제 개방을 담고 있다. 3장 ‘제도와 오스만 제국의 과거’, 4장 ‘개혁과 적자: 유럽의 도전에 대한 오스만의 반응’은 오스만 제국 시기의 경제 쇠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정책을 다루었다. 5장 ‘외국 교역과 투자 개시’, 6장 ‘1820~1914년 경제 발전과 제도적 변화’에서는 외국, 특히 유럽 국가와의 경제 교역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였고, 그 결과 터키가 7장 ‘제국에서 민족국가’로 이행하였음을 서술하였다. 8장 ‘1914~1950년 경제 발전과 제도적 변화’, 9장 ‘2차 세계대전 이후 내재적으로 지향된 발전’은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터키의 내부적인 경제 발전 과정을 담고 있다. 10장 ‘1950~1980년 경제 발전과 제도적 변화’, 11장 ‘신자유주의 정책과 세계화’, 12장 ‘1980~2015년 경제 발전과 제도적 변화’는 시장 개방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터키가 이룬 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터키는 19세기 오스만 제국 시기의 경제 개방,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경제 공황을 거치면서 제국에서 민족국가로의 변혁,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수입을 대체하는 산업화,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과 경제 개방 순으로 변화되어 왔다.